

아동의 형제관계와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박 영 애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Hannam Univ.

Associate Prof: Park Young Yae

〈목 차〉

I. 서 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were related to their self-esteem.

440 children and their only siblings were asked to respond to two questionnaires concerning the two research variables. The questionnaires used were the SRQ(Furman & Buhrmester, 1985) and the SPPC(Harter, 1985).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e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Warmth · Intimacy and Rivalry(parental partiality toward the child himself/herself)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child's self-esteem, while sibling Conflict had negative correlations and Relative Status · Power had little correlation. The best predictor of children's self-esteem was sibling Warmth · Intimacy. The next powerful determinants were Conflict and Rivalry.

Among the six self-esteem measures, the one predicted best by sibling relationships was Global Self-Worth. The next ones were Behavior · Conduct and Scholastic Competence.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predictive power of the sibling relationships factors varied considerably according to such status variables as sex and birth order of children and to whether each of the two research variables was analyzed as a whole or at a factor level.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본 연구는 양육행동과 형제관계가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계획된 일련의 연구중에서 양육행동과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에 이은 두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이다. 자존감에 대한 양육행동과 형제관계의 독립적인 기여양상을 일차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두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하고 상호작용적 효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선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선행작업이다. 상대적 또는 상호작용적 기여양상은 각 변인의 주효과에 해당하는 독립적 작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만이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 발달과 자아 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Coopersmith, 1981; Medinuss, 1965) 그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며(Wylie, 1979), 자존감의 수준과 그 안정성은 광범위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현상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차 변인이다(Snyder & Ickes, 1985; Kernis, Cornell, Sun, Berry, & Harlow, 1993). 그리고 자존감 또는 긍정적 자아개념의 성취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발달의 중심과제 중의 하나이다(Manning, 1989).

이처럼 중요한 자존감은 자신의 역량과 자아가치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서(Harter, 1982; Crocker & Major, 1989; Tashakkori, 1993)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타인들의 반사된 평가와(Cooley, 1902; Mead, 1934; Rosenberg, 1979) 자기 행동효과의 직접적인 경험(Bem, 1972; Bandura, 1977), 그리고 사회적 비교과정(Festinger, 1954; Schachter, 1982) 등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구성원 간의 친밀한 상호작용과 전인격적인 교류 속에서 가족은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에 대해 그 해결방식과 아울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그에게 의미체계를 가치체계를 부여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와 형제자매(이후 형제라 칭함)가 주요 구성요소인 가족환경은 아동의 자아지각 또는 자아평가의 출현에 중요한 맥락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Gecas & Schwalbe 1986; 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양육의 효과는 사회화 연구들이 중심이 된 소위 사회화 과학(socialization science : Rowe, 1994) 영역에서 주로 양육행동의 가족간 차이에 초점을 두고서 꾸준히 연구되어 온 편이나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대한 형제의 영향을 다루는 연구는 그에 비하면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의 형제 연구들은 단순히 형제 지위변수에 따른 형제간의 차이를 기술하는데 집중되어 있었고(박영애, 1984), 그후로 점차 형제간 상호작용의 양상의 특징이라든가 형제관계 자체의 관계적 특성 규명, 또는 부모자녀 관계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오기는 했으나(박영애, 1990; 1991) 형제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이 특정 영역의 발달에 어떠한 양상으로 기여하는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형제연구의 부진은 가족내 주요 사회화 담당자로서의 부모의 중요성에 치중한 나머지 인성연구나 사회화 연구 또는 동일한 이론 등에서 형제의 기여가 무시되어 온데서 그 주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Schachter, 1982; Zukow, 1989; Lamb, 1982).

형제연구가 진일보하면서 다시 활성화된 것은 인간발달의 생태적 맥락이 강조되고 가족연구의 체계적 접근이 대두되면서 부터이다. 가족연구의 초점이 구조변인에서 과정변인으로 이동하고 가족이 상호작용적, 호혜적 관계체계로서 재조명 되면서(Hooper & Hooper, 1990; Von Bertalanffy, 1968) 아동연구의 맥락적 모형(contextual model)들이 제안되었고(Brody & Stoneman, 1987, 1990; Amato & Ochiltree, 1986) 아동의 발달이나 개인차를 유기적으로 상호연결된 가족관계, 즉 그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조직망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Beavers, 1981; Hinde, 1992; Mackinnon, 1989)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형제에 대한 관심은 새롭게 고조되었고 형제도 발달의 맥락으로 간주되었으며 아동

의 사회화에서의 형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Bryant, 1982, 1992; Dunn & Kendrick, 1982; Lamb & Sutton-Smith, 1982; Dunn, 1992) 사회, 인지, 정서 발달에서의 형제의 역할과 형제관계의 기여 및 그 장기적인 측면들까지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다(Zukow, 1989; Lamb, 1982; Cicirelli, 1982).

그러나 그와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그의 형제관계가 그의 자존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자존감에 어떤 양상으로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전술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형제관계와 자존감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1. 아동의 형제관계는 그의 자존감과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호상관을 가지는가?
2. 형제관계는 아동의 자존감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설명해 주는가?
- 1)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형제관계 요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가?
- 2) 형제관계 요인들은 자존감의 어느 영역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형제아와 외동이의 주요한 차이의 근원은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부모로 인한 차이이고 또 하나는 형제가 없음으로 인한 차이이며 나머지 하나는 형제간 상호작용 경험으로 인한 차이이다. 그 중에서 형제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오는 차이는 주로 자존감 영역에서 나타남이 발견되었다(Falbo, 1981). 이러한 결과는 형제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그의 자존감 형성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남긴다는 사실을

잘 반영해 준다. 그러나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진한 편이었다.

자신과 사회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그의 가족구성내 형제지위 지각에서 시작된다는 주장(Adler, 1928, 1959) 이래로 수많은 연구들이 주로 출생순위, 터울, 성, 가족크기 등 가족 및 형제의 지위구조변인 효과를 규명하는데 치중되어 왔다(박영애, 1984). 많지 않은 자존감 관련 연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체로 말이는 그 이후의 아동들보다 높은 자아개념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Gates, Lineberger, Crockett, & Hubbard, 1988; Coopersmith, 1967; Sears, 1970; Gecas & Pasley, 1983; Falbo, 1981).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주비교대상이 동생인 말이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 상황에서 보다 우월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긍정적인 자아개념이나 높은 자존감을 발달시키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사회적 비교과정 수정개념으로 설명되었다(Falbo, 1981).

형제의 성구성 효과는, 동성형제쌍에 속하는가 혼성형제쌍에 속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자존감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견해도 있다(Grenier, 1985; Schachter, 1982; Schachter & Stone, 1985; Tesser, 1980), 형제쌍의 동성, 혼성 여부는 그 자체가 자아개념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고 형제수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Nystul, 1981). Manning(1989)은 자존감에 대한 형제간 온정·친밀성의 효과는 여형제에게서 가장 강하고 갈등지각의 영향은 형제쌍의 점수로 보면 여형제에게서, 개별아동의 점수로 보면 남형제에서 가장 강하며 혼성쌍의 경우는 온정·친밀성과 갈등지각이 아동의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 아주 약함을 발견했는데, 이는 전자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후자의 경우는 자녀가 둘일때는 성구성 효과가 없으나 세자녀 이상일 때는 형제가 아동자신과 동성인가 이성인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가 하면 윗형제 또는 아랫형제의 수에 따른 차이(Raschke & Raschke, 1979)나 성과 터울의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있다(Falbo, 1981).

그러나 형제구조변인의 단순효과만을 보는 것으로

는 아동들의 다양한 개인차나 상이한 형제관계 유형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형제관계 연구의 시야는 넓어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서 형제관계 이해를 위한 개념모형을 제시한 Furman과 Buhrmester(1985a)가 형제관계의 결정요인에 가족구조변인과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개별아동의 특성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든가 Brody와 Stoneman(1990)이 형제관계를 개별아동의 기질과 특정한 형제유대 및 부모의 형제관리전략 삼자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설명하려 한 것 등은 그와같은 인식의 변화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그 무렵에 출현한 형제관계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행동(존재 자체, 개입과 참여, 차별적 행동 등)이 자녀들의 형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초점을 둔 것들이다(박영애, 1995의 이론적 배경 부분 참고). 그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와의 관계와 형제와의 관계가 결코 분리된 상태에서 경험될 수 없는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로서, 아동의 행동 및 발달 연구나 부모자녀 관계 연구가 형제관계 연구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형제관계에 대한 부모의 영향 연구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형제관계의 구조적 요인특성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들은 형제관계 척도의 개발 움직임과 더불어 출현한 것들이다. 형제간 온정·친밀성, 갈등, 상대적 지위·권력, 그리고 경쟁의식 등의 네 요인이 내장된 형제관계척도를 사용하여 형제관계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형제관계 요인 중 특히 형제간 갈등은 청소년의 행동문제 및 자존감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Furman, et, al., 1985a). 동일한 형제관계 척도를 사용한 최형성(1992)은 형제관계의 온정·친밀성 요인과 경쟁성 요인이 아동의 자존감과 유의한 정상관을, 그리고 갈등요인은 부적상관을 보이고, 상대적 지위·권력 요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발견했다.

Manning(1989)은 Furman과 Buhrmester(1985b)의 SRQ(Sibling Relationships Questionnaire)와 Harter(1985)의 SPPC(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를 사용한 결과 형제관계의 온정·친밀성 지각은 아

동의 자아가치감과 높은 정적상관을, 그리고 갈등지각은 높은 높은 부적상관을 가짐을 발견했다. 이처럼 형제관계를 친밀하게 지각할수록 자존감이 높고 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자존감이 낮은 것은 출생순위나 성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지위 구조변인을 넘어서 관계변인의 효과를 다루는 진전된 양상을 띄고는 있으나 과정기제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중류계층 두 자녀 가족의 형제아 440쌍이었다. 표집은 서울과 대전지역의 4개 중학교와 3개 국민학교에서 이루어졌고 아동의 지역 분포는 서울이 280쌍, 대전이 160쌍이었고 학년은 국민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의 범위에 속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형제쌍은 399쌍으로서 총 798명 이었다.

성별구성은 남아가 50.3%, 여아가 49.7% 였고 학년은 국민학교 5학년이 22.5%, 6학년이 20.2%, 중학교 1학년의 15.5%, 2학년이 32.3%, 그리고 3학년 9.6%였다. 형제 성구성은 남·남 23.4%, 남·여 24.1%, 여·남 29.7%, 그리고 여·여 22.9%였다.

2.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사전조사,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사전조사는 조사에 사용될 질문지들의 내용타당도와 의사전달도 및 반응회특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비조사는 연구변인별 질문지들의 1차 요인분석을 위한 것으로서 100쌍의 형제, 즉 20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440명의 형제아들에게 배부된 880부의 질문지들 중 회수된 834부(417쌍) 가운데서 자녀수가 셋 이상이거나 학년 범위를 벗어난 아동이 포함된 형제쌍, 그리고 성의없는 응답이나 무응답의 경우 등을 제외한 798부의 질문지들이 분석되었다.

3. 측정도구

1) 형제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는 Furman과 Buhrmester(1985b)가 제작한 이래로 아동 및 가족분야의 연구에서 다른 형제관계 척도들에 비해 비교적 널리 사용되어 온 48 문항의 SRQ(Sibling Relationships Questionnaire)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내용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과 문항양호도 및 요인분석 등의 검사를 거쳐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박영애, 1995). 이 SRQ는 심층면접을 통해 형제관계의 질에 관해 광범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한 후 그 내용을 분석해서 질문지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서, 척도로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추고 있어서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으로서의 형제관계를 측정하는 연구도구로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Brody & Stoneman, 1990).

형제관계의 네 가지 주요요인은 온정·친밀성(Warmth/Intimacy), 갈등(Conflict), 상대적지위·권력(Relative Status/Power), 그리고 경쟁의식(Rivalry)이었다. 척도의 점수체계는 5점척도였고 척도전체의 반분 신뢰도는 .86이었으며, 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온정·친밀성이 .93, 형제갈등이 .85, 상대적 지위·권력이 .81, 그리고 경쟁의식(편애지각)이 .77 이었다.

2) 자존감 척도

자존감 척도는 Harter의 아동용 자아지각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1985)를 요인분석, 신뢰도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사용한 것이다(박영애, 1995 참조). 원척도의 구성은 다섯 가지의 자존감 하위영역에 대한 자아지각과 하나의 총체적 자아가치 평가를 위한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6개의 하위척도에 각 6문항씩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 가지 하위영역은 학업능력(Scholastic Competence)과 운동능력(Athletic Competence) 등의 직접적인 유능성(Competence) 판단과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 신체적 용모(Physical Appearance), 그리고 행동·품행(Behavioral Conduct) 등의 자아 적절성(Self-Adequacy)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전반적 자

아가치감(Global Self-Worth)은 이들의 합으로서가 아니고 별도의 개념이면서 이들과 상관을 지니는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번안된 척도의 요인구조는 Harter 자신의 요인분석처럼 5가지 하위영역만을 분석하면 Harter와 결과와 거의 동일하였고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포함시켜 여섯요인으로 분석을 한 경우도 소수의 문항들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요인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존감 척도의 점수체계는 4점 척도이며, 척도전체의 신뢰도는 .89%였고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운동능력 지각이 .85, 학업능력 지각이 .81, 신체지각이 .80,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75, 사회적 수용도가 .70, 그리고 행동·품행지각이 .61 이었다.

4. 자료처리

모든 통계처리는 SAS를 사용하였으며 자존감 요인들에 대한 형제관계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는 다단계 다중회귀분석, 그리고 형제관계 요인들과 아동의 자존감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정준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형제관계와 자존감간의 상호상관

아동의 형제관계 경험은 그의 자존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의 방향성 및 기본적인 관계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네 가지의 형제관계 요인들과 여섯 가지 자존감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형제관계와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는 양육행동의 경우(박영애 & 정옥분, 1996)만큼 높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의한 수준이었다. 형제관계의 온정·친밀성은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감 및 사회적 수용도, 행동관련 자존감, 그리고 학업능력 지각 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형제간 갈등은 전반적 자아가치, 행동, 학업, 그리고 신체 관련 자존감

〈표 1〉 형제관계 요인들과 자존감 요인들간 상호상관분석¹⁾

형제관계 자 존 감	온정·친밀성	갈 등	상대적 지위·권력	경쟁의식(편애)
전반적 자아가치감	.17***	-.16***	-.09*	.16***
학업능력	.15***	-.17***	-.05	.13**
행동·품행	.16***	-.16***	.02	.14***
운동능력	.00	-.05	-.04	.09*
신체·용모	.08*	-.16***	.07	.10*
사회적 수용도	.15***	-.08	-.07	.12**

1) 전체아동에 대한 분석임

2) * P<.05, ** P<.01, *** P<.001

점수들에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상대적 지위·권력 지각은 대체로 자존감과 거의 상관이 없었다. 경쟁의식, 다시말해서 자신에 대한 부모 편애의 지각은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행동자존감을 위시한 모든 자존감 측정치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자존감 하위척도들 중에서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유일하게 형제관계의 모든 요인들과 상관관계를 가짐이 발견되었다.

2. 자존감에 대한 형제관계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

아동의 자존감 요인들에 대한 형제관계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단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집단을 아동전체, 첫째자녀, 둘째자녀, 남아, 그리고 여아로 하여 다섯 차례의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아동의 각 자존감 영역별로 유의하게 기여하는 예측변수로 뿔뿔히나온 형제관계 요인들은 〈표 2〉와 같다.

〈표 2〉의 내용을 자존감 영역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 자아가치감에는 형제관계의 온정·친밀성과 자기편애 지각이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이때 편애지각에는 특히 첫째보다는 둘째자녀의, 그리고 남아보다는 여아의 자아가치감이 민감해 보였다.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형제관계의 기여는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운동영역자존감에는 편애지각의 영향이 가장 컸고 신체자존감은 주로 형제갈등에 의해 좌우됨이 발견되었

〈표 2〉 자존감에 대한 형제관계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

	아동전체	첫째자녀	둘째자녀	남 아	여 아
전반적 자아가치감	1*** ¹⁾	1**	4***	1**	1***
	4**		2**		4**
	2**		1*		3*
	.07 ²⁾	.05	.09	.05	.09
사회적 수용도	1***	1***	4***	1*	1***
	4*	3*	1*		4**
	.04	.05	.07	.03	.08
운동능력	4*		3**	4*	
			4**		
	.01	.00	.06	.03	.01
신체·용모	2***	2***	2*	1**	2**
	4*		4*		
	.04	.05	.03	.04	.04
행동·품행	2***	4***	2***	2**	2***
	4***	1**			4**
	1**				1*
	.06	.09	.05	.05	.09
학업능력	2***	2*	2***	1**	2***
	1**	4*	1*		4***
	4*				1*
	.06	.05	.07	.04	.09

1) 1은 온정·친밀요인, 2는 갈등요인, 3은 상대적 지위·권력 요인, 그리고 4는 경쟁의식(편애지각) 요인을 나타냄.

2) 다중회귀분석의 R²임.

3) * P<.05, ** P<.01, *** P<.001

다. 행동영역 자존감은 주로 형제갈등 및 편애지각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는데 특히 첫째자녀는 편애지각에 의해서, 둘째자녀와 남아는 형제갈등에 의해서, 그리고 여아는 그 두가지 모두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 학업능력 지각은 주로 형제갈등에 의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온정·친밀성과 편애지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첫째자녀와 여아는 둘째자녀나 남아와 달리 부모의 편애지각의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음이 밝혀졌다.

형제관계 요인별로 보면, 온정·친밀성은 특히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사회적 수용도에, 형제갈등은 행동과 학업 및 신체 자존감에, 상대적 지위·권력은 둘째자녀의 운동자존감과 같이 극히 한정된 경우에, 그리고 편애지각은 자존감 전 영역에 걸쳐 유의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편애지각은 전반적 자아가치와 사회적 수용도에서는 둘째자녀와 여아가, 그리고 행동과 학업영역에서는 첫째자녀와 여아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왔다.

3. 형제관계 요인과 자존감 요인들간 정준상관관계

구체적으로 형제관계 요인들과 자존감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두 변인간 관계가 최대화되며 그럴 때 가장 예측력이 우수한 형제요인들과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자존감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형제관계의 네 요인점수들을 예측변수로 하고 자존감의 여섯가지 하위척도 점수들을 평가변수로 하여 정준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의 유의도 관련 정보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의수준에 미치는 정준상관은 응답집단 구성에 관계없이, 그리고 출생순위나 아동의 성에 관계없이 제1정준상관에 한하였다. 제1정준상관에서의 누적설명률(R^2)로 볼 때 형제관계 요인들이 자존감 요인들을 가장 양호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이고, 그 다음이 여아집단, 첫째자녀 집단, 둘째자녀 집단, 그

<표 3>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 간의 정준상관분석 요약^{a)}

응답아동	유의 정준상관	정준상관 계수	누적비율	F값 ²⁾	자유도	P>F
전 체	제1정준	.30	.72	3.51	24	.0001
첫째자녀	제1정준	.33	.65	2.51	24	.0001
둘째자녀	제1정준	.32	.59	2.37	24	.0002
남 아	제1정준	.27	.50	1.88	24	.007
여 아	제1정준	.38	.70	3.08	24	.0001

- 1) 분석결과 중 유의수준에 미치는 정준상관에 관련된 수치들만 뽑아서 모은 것임.
- 2) Wilks' Lambda임

종합적으로 보면, 형제관계 요인들은 자존감 측정치들중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가장 잘 설명했고 그 다음으로 행동과 학업 자존감을 잘 예측하였다. 또한 첫째자녀 보다는 둘째자녀의, 그리고 남아보다는 여아의 자존감을 더 잘 예측하였다. 예외적으로 신체 및 행동영역에서는 첫째자녀의 자존감을 더 잘 예측하였다.

리고 남아집단의 순으로 그 설명력이 약해짐을 볼 수 있다.

제1정준상관에서 가장 우수한 예측변수들과 비중에 있는 평가변수들을 교차상관관계수들을 이용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전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첫째자녀와 둘째자녀의 분석결과는 <표 5>와 <표 6>에, 그리고 남아와 여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동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형제관계 요인들 중 자존감 측정치들을 예측하는

〈표 4〉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간 제1정준상관의 교차상관¹⁾

예측변수군	정준평가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평가변수군	정준예측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온정·친밀성	.216	전반적 자아가치감	.251
형제갈등	-.188	사회적 수용도	.183
상대적 지위·권력	-.052	운동능력	.072
편애지각	.184	신체·용모	.175
		행동·품행	.231
		학업능력	.226

1) 아동전체를 분석한 결과임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온정·친밀성(.216)이었고 그 다음이 형제갈등(-.188)과 편애지각(.184)이었다(표 4 참조). 자존감 측정치들 중에서 형제관계 요인들과 가장 높은 상관을 지닌 것은 전반적 자아가치감(.251)이었고 그 다음이 행동관련 자존감(.231)과 학업영역 자존감(.226)이었다. 이는 아동의 자존감 중에서 형제관계 요인들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 지는 것이 전반적 자아가치감이고, 그 다음이 행동과 학업능력에 관련된 자존감들이라는 의미이다.

첫째 자녀의 자존감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형제요

인은 온정·친밀성(.248)이었고 그 다음이 편애지각(.185)이었다. 이는 첫째 자녀의 자존감이 형제관계 요인중 특히 온정·친밀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을 의미한다. 형제요인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자존감 측정치는 행동자존감(.273)이었고 그 다음이 전반적 자아가치(.219)와 학업자존감(.216)이었다. 이는 첫째 자녀의 경우는 형제관계의 경험이 특히 아동자신의 행동·품행에 대한 지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자녀의 경우 자존감에 대한 교차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형제요인은 편애지각(.219)이었으나 온

〈표 5〉 형제관계와 첫째자녀의 자존감간 제1정준상관의 교차상관

예측변수군	정준평가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평가변수군	정준예측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온정·친밀성	.248	전반적 자아가치감	.219
형제갈등	-.136	사회적 수용도	.180
상대적 지위·권력	.118	운동능력	.018
편애지각	.185	신체·용모	.182
		행동·품행	.273
		학업능력	.216

〈표 6〉 형제관계와 둘째자녀의 자존감간 제1정준상관의 교차상관

예측변수군	정준평가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평가변수군	정준예측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온정·친밀성	.212	전반적 자아가치감	.289
형제갈등	-.207	사회적 수용도	.232
상대적 지위·권력	-.025	운동능력	.131
편애지각	.219	신체·용모	.163
		행동·품행	.196
		학업능력	.230

〈표 7〉 형제관계와 남아의 자존감간 제1정준상관의 교차상관

예측변수군	정준평가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평가변수군	정준예측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온정·친밀성	.243	전반적 자아가치감	.210
형제갈등	-.169	사회적 수용도	.155
상대적 지위·권력	-.061	운동능력	.039
편애지각	.060	신체·용모	.189
		행동·품행	.170
		학업능력	.196

〈표 8〉 형제관계와 여아의 자존감간 제1정준상관의 교차상관

예측변수군	정준평가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평가변수군	정준예측변수군과의 교차상관계수
온정·친밀성	.248	전반적 자아가치감	.274
형제갈등	-.170	사회적 수용도	.256
상대적 지위·권력	-.033	운동능력	.094
편애지각	.293	신체·용모	.164
		행동·품행	.300
		학업능력	.288

정·친밀성(.212)과 형제갈등(-.207)도 큰 차이없는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는 둘째자녀의 자존감이 첫째 자녀에 비해 편애지각에 더 민감하기는 하나 온정·친밀성과 형제갈등을 포함한 세 요인에 의해 비교적 고르게 영향을 받음을 말해준다. 형제요인이 가장 잘 예측해주는 자존감 요인은 전반적 자아가치감(.289) 이었고 그 다음이 사회적 수용도(.232)와 학업자존감(.230)으로 드러났다. 둘째자녀의 경우는 구체적인 자존감 영역보다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형제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남아의 경우 가장 강력한 자존감 예측요인은 온정·친밀성(.243)이었고 그 다음이 형제갈등(-.169)이었다(표 7). 그리고 남아의 자존감 측정치들 가운데서 형제관계와 가장 높은 정준상관을 지닌 것은 전반적 자아가치감(.210)이었고, 그 다음이 학업자존감(.196)과 신체자존감(.189)이었다.

여아의 경우 자존감에 대한 상관이 가장 높은 형제요인은 남아의 경우와 달리 편애지각(.293)이었고 두번째가 온정·친밀성(.248)이고 그 다음이 형제갈

등(-.170)이었다(표 8).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자존감이 남아에 비해 부모의 애정에 대한 형제간의 비교에 특별히 더 민감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여아의 자존감 측정치들 가운데서 형제관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행동관련 자아지각(.300)이었다. 그 다음은 학업자존감(.288)이었고 전반적 자아가치감(.274)과 사회적 수용도(.256)가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남아의 경우 형제관계가 자아지각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행동영역과는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인데 반해 여아의 경우는 행동영역 자존감이 형제관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의 요인들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부모의 양육행동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형제관계도 자존감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형제관계의 네 요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닌 유일한 자존감 측정치였다. 특히 이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나머지 다섯 기본영역 점수 총합의 개념과는 차별성이 강조된 바(Harter, 1985; Brissett, 1972; Gecas & Schwalbe, 1986) 있는 보다 총체적인 개념의 자아지각으로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자존감 측정치임이 확인된 셈이다. 양육행동과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에서도 전반적 자아가치감 점수는 모든 양육행동요인들과 비교적 고르게 높은 상관을 보여 상당히 안정성을 지닌 자존감 측정치임이 확인된 바 있다(박영애등, 1996). 형제관계 요인들이 그 다음으로 잘 예측해주는 자존감 측정치는 행동자존감이었고 그 다음이 학업자존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행동에 의해 가장 잘 측정된 자존감이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사회적 수용도였던 것(박영애등, 1996)과 차이가 난다. 이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수용도 지각을 더 잘 예측하는데 반해 형제관계는 아동의 행동·품행 및 학업자존감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형제관계 요인들과 자존감 요인들간 상호상관관계의 전반적 양상은 형제간 온정·친밀성 지각이 아동의 자아가치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갈등지각이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는 Manning(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와 동일한 형제관계 척도에 상이한 자존감 척도를 사용한 최형성(1992)은 형제관계의 온정·친밀성과 경쟁성이 아동의 자존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갈등과는 부적상관을 가지며, 형제간 상대적 지위·권력은 아무런 상관도 보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는데 이것 역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형제간 상호작용의 정서적 측면이 아동의 자아가치와 사회적 수용도 및 행동자아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발견(McHale & Gamble, 1989)도 본 연구결과와 상통한다. 이와같은 사실은 형제관계와 자존감간의 상관관계 양상의 전반적인 특징에 관해서는 자료간 일치도가 어느 정도 있음을 말해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형제관계는 첫째보다 둘째자녀

의, 그리고 남아보다 여아의 자존감을 더 잘 예측하였는데, 예외적으로 행동영역과 신체자존감에서만은 둘째보다 첫째자녀의 자존감이 형제관계와 상관이다 높았다. 이처럼 둘째와 여아의 자존감이 형제관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발견은 양육행동이 둘째와 남아의 자존감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된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형제관계를 포함하는 가족관계 전반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쪽은 둘째자녀이고, 양육행동의 효과는 남아에게서, 그리고 형제관계의 효과는 여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특성도 몇가지 분석결과들 중 어느 것에 의존하여 어떤 식으로 기술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다.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총체적 예측력으로 볼 때는 으뜸 기여요인이 온정·친밀성이고 그 다음이 형제갈등이며 그 다음이 권애지각이었다(표 4 참조). 그러나 모든 자존감 측정치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유일한 형제요인은 권애지각 요인이었다(표 1 참조). 그런가하면 각 자존감 요인들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형제관계 요인으로 추출된 빈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형제갈등요인 이었다(표 2 참조). 이러한 차이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어떠한 자료처리 방식을 통해 접근하고 절단하였는가에 따라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정보가 비묘하게 다를 수 있음을 입증해 준다. 그리고 한가지 방법으로 처리된 자료가 보여주는 모습만으로 결론을 속단하는 것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오해와 오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전체아동을 분석집단으로 한 결과에서는 자존감 예측력이 가장 높은 형제관계 요인이 온정·친밀성이었고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자존감이 전반적 자아가치감이었으나(표4 참조), 이러한 결과도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별 분석결과에서는 다르게 나왔다. 둘째자녀와 여아집단에서 온정·친밀성이 아닌 권애지각이, 그리고 첫째자녀와 여아집단에서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아닌 행동자존감이 각각 유력한 예측변수와 평가변수로 드러났는데, 이는 총체적으로 볼 때는 남아와 첫째자녀보다 여아와 둘째자녀가 더 권애지각에 민감하고 여아와 첫째자녀의 경우는 특별

히 행동·품행 자존감이 형제관계 지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해준다(표 5, 6, 7, 8 참조).

뿐만 아니라 각 요인이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자존감 요인들의 수와 종류도 형제관계 요인별로 차이가 있었다(표 2 참조). 온정·친밀성은 특히 전반적 자아 가치감과 사회적 수용도에, 형제갈등은 특히 행동과 학업자존감에, 그리고 편애지각은 자존감 전반에 고르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각 자존감 요인별로 볼 때도 예측력이 높은 형제관계 요인이 다름은 물론 분석집단의 구성에 따라서도 우수한 예측 요인들이 다르게 나왔다(표 2 참조). 전반적 자아 가치감과 사회적 수용도는 온정·친밀성 요인이, 행동과 학업 및 신체자존감은 갈등 요인이, 그리고 운동자존감은 편애요인이 가장 잘 예측한 것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형제관계 요인이 각 자존감 요인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 자아 가치감과 사회적 수용도가 둘째자녀 집단에서만은 편애요인에 의해서, 학업과 신체자존감이 남아집단에서만은 온정·친밀성에 의해서, 그리고 행동자존감이 첫째자녀 집단에서만은 편애요인에 의해서 가장 잘 예측된 것은 그와같은 결과들이 아동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들과 그에 대한 논의의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는 아동의 형제관계와 그의 자존감과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의 자존감은 그의 형제관계 경험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자존감 전체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은 형제관계 요인은 온정·친밀성이고 그 다음이 형제갈등과 편애지각이다. 형제관계 요인들이 집단적으로 가장 잘 예측해줄 수 있는 자존감 요인은 전반적 자아 가치감이고 그 다음이 행동과 학업자존감이다. 대체로 볼 때 형제관계는 남아보다 여아, 그리고 첫째자녀 보다는 둘째자녀의 자존감을 더 잘 예측해 준다.

그러나 이와같은 결과들은, 논의부분에서 상세히

지적되었듯이, 형제관계 전체에 대한 것인지 개별요인에 따라서 본 것인지, 자존감 전체에 대한 것인지 개별 자존감 요인에 따라서 본 것인지, 그리고 분석 집단의 구성을 아동전체로 한 것인지, 남·여아 집단별로 분석한 것인지, 혹은 아동의 출생순위별 집단으로 구분해서 본 것인지에 따라 다소 복잡하기도 하나 비교적 설득력 있는 양상으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들은 형제간 상호작용의 경험과 형제관계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성에 따라서는 물론 한 가족내의 형제간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나 형제관계와 같은 심리적 혹은 관계적 현상들은 그 각각의 본래적 모습이 워낙 복잡하고 다차원적인데다 유동적이기까지 한 것인만큼 그들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정교하면서도 동시에 포괄적인 구도를 취해야할 필요가 있다.

형제관계나 자존감에 관한, 또는 그러한 변인을 포함하는 연구가 보다 충실한 기초정보를 토대로하여 발전하고 또한 보다 의미있는 정보의 수집을 통해 분석의 심도를 더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우선 형제관계 지각이나 자존감 자체에 대한 보다 철저하게 체계적인 기술적 정보군을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형제간의 차이를 볼 때는 단순한 순위차이가 아닌 당사자들의 진정한 체감적 차이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의미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와의 통합적 연구를 통해 변인간 상호관계는 물론 개별변인에 대해서도 보다 충실한 이해를 얻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형제관계나 자존감에 관련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박영애 (1984). 동기관계 연구에 대한 고찰 -인성 발달 연구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논문집, 14, 255- 271.
- 2) 박영애 (1990). 미국 동기관계 연구의 최근동향

- 기본인식과 접근방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 (2), 147-162.
- 3) 박영애 (1991). 동기관계 연구의 현황분석 -미국 연구의 요인별 분석-. 한남대학교 논문집 21, 319-346.
 - 4)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5) 박영애, 정옥분 (199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와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권 1호, 321-340.
 - 6) 최형성 (1992). 아동이 지각하는 형제관계와 자존감과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Adler, A. (1928). Characteristics of the 1st, 2nd and 3rd child. *Children*, 3(Issue 5).
 - 8) Adler, A. (1959). *Understanding human nature*. New York : Premier Books (Fawcett). (Originally published in 1929).
 - 9) Amato, P. R. and Ochilree, G. (1986). Family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child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7-56.
 - 10)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11) Beavers, W. R. (1981). A systems model of family for family therapis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299-307.
 - 12) Bem, D. J. (1972). Self perception theory.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6). New York : Academic.
 - 13) Brisset, D. (1972). Toward a clarification of self-esteem. *Psychiatry*, 35, 255-263.
 - 14) Brody, G. H. & Stoneman, Z. (1987). Sibling conflict : Contributions of the siblings themselves, the parent sibling relationship, and the broader family system. In F. F. Schachter, & R. K. Stone, (Eds.), *Practical concerns about siblings : Bridging the research-practice gap*. New York : Harworth Press.
 - 15) Brody, G. H. & Stoneman, Z. (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I. E. Sigel & G. H. Brody (Eds.), *Methods of family research : Biographies of research projects : Vol. 1. Normal families* (pp. 189-212). Hillsdale, NJ : Earlbaum.
 - 16) Bryant, B. K.(1982). Sibling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In M. Lamb & B. Sutton-Smith (Eds.), *Sibling relationships : Their nature and significance across the lifespan*. pp. (87-121). Hillsdale, NJ : Erlbaum.
 - 17) Bryant, B. K. (1992). Sibling caretaking : Providing emotional support during middle childhood. In F. Boer & J. Dunn (Eds.)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18) Cicirelli, V. G. (1982). Sibling influence throughout the lifespan. In M. E. Lamb and B. Sutton-Smith (Eds.), *Sibling relationships : Their nature and significance across the lifespan*. Hillsdale : NJ, Lawrence Erlbaum.
 - 19)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Charles Scribner's
 - 20)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W. H. Freeman.
 - 21)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2nd ed.). Palo Alto, Calif.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22)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 esteem :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23)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 (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05-715.
 - 24) Dunn, J. (1992). Sisters and brothers : Current issues in developmental research. In F. Boer & J. Dunn (Eds.),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
 - 25) Dunn, J. & Kendrick, C. (1982). *Siblings : Love,*

- envy, & understanding.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26) Falbo, T. (1981). Relationships between birth category, achievement and interpersonal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121-131.
- 27)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28) Furman, W. & Buhrmester, D. (1985a).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29) Furman, W. & Buhrmester, D. (1985b).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qualities of their sibling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6, 448-461.
- 30) Gates, L., Lineberger, M. R., Crockett, J., & Hubbard, J. (1988). Birth order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ion, anxiety, and self-concept test scores in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9, 29-34.
- 31) Gecas, V. & Pasley, K. (1983). Birth order and self-concep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521-535.
- 32)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33) Grenier, M. E. (1985). Gifted children and other siblings. *Gifted Child Quarterly*, 29, 164-167.
- 34)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35)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Denver, CO : University of Denver.
- 36) Hinde, R. A. (1992). Developmental psychology in the context of other behavioral sci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018-1029.
- 37) Hooper, F. H. & Hooper, J. O. (1990). The family as a system of reciprocal relations : Searching for a developmental lifespan perspective. In I. E. Sigel & G. H. Brody (Eds.), *Methods of family research*.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38) Kernis, M. H., Cornell, D. P., Sun, C., Berry, A., & Harlow, T. (1993). There's more to self-esteem than whether it is high or low :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190-1204.
- 39) Lamb, M. E. (1982). Sibling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span : An overview and introduction. In M. E. Lamb and B. Sutton-Smith (Eds.), *Sibling relationships : Their nature and significance across the lifespan*.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40) Mackinnon, C. E. (1989). An observational investigation of sibling interactions in married and divorced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6-44.
- 41) Manning, P. C. (1989). Family functioning, sibling relationships, and a child's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U. M. I.
- 42) McHale, S. M. & Gamble, W. C. (1989). Sibling relationships of children with disabled and nondisabled brothers and sis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21-429.
- 43)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44) Medinnus, G. R. (1965).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50-154.
- 45) Nystul, M. S. (1981). Effects of siblings' sex composition on self-concept. *Journal of Psychology*, 108, 133-136.
- 46) Raschke, H. J. & Raschke, V. J. (1979). Family conflict and children's self-concept : A comparison of intact and single-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367-374.
- 47)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 York : Basic Books.
- 48) Rowe, D. C. (1994). The limits of family influence.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49) Schachter, F. F. (1982). Sibling deidentification and split-parent identification : A family tetrad. In M. E. Lamb and B. Sutton-Smith (Eds.), *Sibling relationships : Their nature and sinificance across the lifespan* (pp. 123-151). Hillsdale, NJ : Erlbaum.
- 50) Schachter, F. F. & Stone, R. K. (1985). Pediatricians' and psychologists' implicit personality theory : Significance of sibling differences. *Journal of Development and Behavioral Pediatrics*, 6, 295-297.
- 51) Sears, R. (1970).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self-concepts and gender rol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1, 267-289.
- 52) Snyder, M. & Ickes, W. (1985). Personality and social behavior. In G. Lindzey &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Vol. 2, pp. 883-948.
- 53) Tashakkori, A. (1993). Gender, ethnicity, and the structure of self-esteem : An attitude theory approac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4), 479-488.
- 54) Tesser, A. (1980). Self-esteem maintenance in family dynam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7-91.
- 55) Von Bertalanffy, L. (1968). *General systems theory*. New York : George Braziller.
- 56) Wylie, R. C. (1979). *The self-concept :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Vol.2).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57) Zukow, P. G. (1989). Siblings as effective socializing agents : Evidence from Central Mexico. In P. G. Zukow (Ed.), *Sibling interaction across culture :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New York : Springer-Verlag.